

# 송 고 한 인 민 사 랑 의 메 아 리 는 세 월 의 언 덕 을 넘 어

## 메 아 리 사 격 관 을 찾 아 서



평양시 청춘거리의 풍치수려한 곳에 위치한 메아리사격관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개진되어 얼마전부터 봉사를 시작하였다.

위치부터 명당자리인 메아리사격관은 어디를 돌아보아도 감탄을 자아낸다. 솔솔이 우거진 야산기슭을 따라 여러동의 봉사건물들이 계단식으로 조화롭게 들어앉았는데 마치 현대적이면서도 야생의 아름다움을 발복한다.

야외사격장, 야외체육장 등으로 이루어진 메아리사격관의 1층에는 광선총사격장, 50m보총사격장, 삼정, 전자오락실 등이, 2층에는 30m실내활쏘기장, 25m권총사격장, 전자권총사격장, 사격교육을 등이 자리잡고 있다. 본관내부의 천정과 바닥에 원형사격과녁을 형상한 조명과 부각장식은 사격관의 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메아리사격관이 이렇듯 현대적인 대중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설수 있는것은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인민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 늘 마음써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총속에 지난 시기 메아리사격관은 수많은 사격애호가들의 마음속에 친근하게 자리잡아왔다.

아버이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메아리사격관을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더 잘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대중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릴 구상을 펼쳐치고 설계와 건설력량, 자재 등 개건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메아리사격관은 공사가 시작된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그 면모를 새롭게 일신할수 있었다.

지난 2월 새로 개진된 메아리사격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계와 시공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니 마치 호텔에 온것 같다고, 사격관이 문을 열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문화적재부를 안겨줄수 있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며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이곳 봉사원 서향순은 자애로운 원수님께서 총소리의 세기와 사격장의 조도에 대해서도 료해하시며 사람들이 사격할 때 귀를 상할수 있으므로 귀막이를 해줄때 대해서와 목표물을 더 크게 만들어 세우주며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관람석의 경사진 통로에 계단을 만들어줄데 대하여 친어버이심정으로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고 격정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식당에 놓인 가구와 메아리사격장을 찾을 인민들의 교통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헤아려주신 원수님의 은정을 가슴

뜨겁게 느끼며 이곳에서 사격의 희열을 한껏 맛보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도다 흥분된 심정을 터놓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 직장장 김만철은 새로 개진된 사격관에서 가슴후련히 사격을 하였다고, 우리 인민이 세상에 부러울것없이 만복을 누리는 꿈같은 현실을 이 땅우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어머니조국에 대한 고마움의 목소리가 행복의 메아리되어 끝없이 울리는 문화정서생활기지, 메아리사격관을 찾는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수는 날이 늘고있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이 땅에서 송고한 인민사랑의 메아리는 세월의 언덕을 넘어 끝없이 울려파지리라.

본사기자 최대성

## 긴 장 감 과 태 감, 사 격 의 묘 미 를 느껴 보 다

《탕! 탕! 탕!》

여기는 얼마전 훌륭히 개진되어 봉사를 시작한 메아리사격관이다. 요즘 이곳은 사격애호가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근로자들로 흥성거리고 있다.

귀마개를 한 사람들이 일렬로 줄지어 각기 자기 좌지를 차지한 다음 긴 보총을 어깨에 대고 방아쇠를 당긴다. 그들중에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런 처녀도 있고 중년나이의 현숙한 녀성도 보인다.

조금은 버거워보이는 총을 어깨에 밀착시키고 사격좌지를 차지한 처녀의 표정에서는 목표를 명중시키겠다는 굳은 각오가 엿보인다. 순간 《탕-》하는 총소리와 함께 50m밖에 있는 목표판에 총알이 박혔다. 명중!

(거참, 보기와는 다른데...)

《한번 총을 쏘보십시오. 사격은 옆에서 보는것보다

직접 쏘보아야 그 재미를 알수 있습니다.》

나이런 처녀가 목표판을 명중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워하는 기자의 손을 잡아끌며 봉사원이 하는 말이었다.

《자세는 최대한 낮추고 원형조문안에 조성을 맞추고 천천히 목표의 중심중부를 겨누십시오. 호흡조절을 잘한 다음에 지그시 방아쇠를 당기십시오.》

봉사원의 지시에 따라 목표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더니 총성이 울리는것과 함께 어깨에 약간의 충격이 가해졌다. 순간 열떠를 겪었지만 뒀지 모를 쾌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내가 쏜 8번 좌지에 설치된 컴퓨터화면에 사격결과가 현시되었다. 명중이었다.

《어떻습니까? 통쾌하지요? 목표가 명중될 때의 짜릿한 쾌감이야말로 사격의 묘미랍니다.》

메아리사격관이 훌륭히 개

진되어 봉사를 시작한 지난 3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는다는 한 사격애호가하는 말이었다.

사격을 시작하지 18년 된다는 그는 목표를 겨눌 때의 팽팽한 긴장감, 목표를 명중했을 때의 짜릿한 통쾌감을 사격의 매력으로 꼽으며 사격을 하고나면 스트레스가 순간에 풀린다고 하면서 자주 사격을 할것을 권고하였다.

사격은 화약을 리용하는 총이 나온 때로부터 시작였으며 15세기에는 스위스에서 화승총을 리용한 사격경기가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5%의 체력과 95%의 정신력이 요구되는 사격은 스트레소해소뿐 아니라 집중력을 높여주는 체육종목인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메아리사격관 야외사격장에서의 사격은 제일 인기를 끄는 종목이다.

이곳에는 12개의 사격좌치가 있는데 그중 11번과 12번 좌치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지하려고 하는 인기좌치이다. 바로 그곳에서 썰, 닭을 비롯한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을 사격할수 있기때문이다. 청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살아 움직이는 썰이나 닭들을 사격하는 재미란...

《썰을 쏘아맞히는 손님들이 많습니까?》

《다들 얼마나 사격명수들인지 모르답니다. 10발을 쏘서 6마리의 썰을 명중시킨 손님도 있고 매일 와서 썰사냥을 하고 가는 손님도 있습니다.》

썰, 닭사격이 손님들에서 대단한 인기를 끄는데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사격할수 있다는데도 있지만 자기가 쏘아맞힌 썰과 닭을 가지고 갈수 있고 즉석에서 요구에 따라 각종 요리로 봉사해준다는데도 있다. 금방 《사

냥》한 썰과 닭을 받아안고 싱글뽀글 웃으며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깊다.

25m권총사격장, 광선총사격장, 전자권총사격장을 비롯하여 메아리사격관의 곳곳마다에서 사격을 즐기는 사람들의 기쁨에 넘친 모습이 보인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행복한가. 단지 사격의 재미가 좋고 봉사시설이 훌륭해서인가.

다른 나라들에서 사격은 평민들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귀족스포츠》로 알려져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스키와 스마뿐 아니라 사격도 인민이 즐기는 체육종목으로 되고있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마음껏 향유하는 문화정서생활의 수단으로 되고있다. 인민의 기쁨이 한껏 넘치는 메아리사격관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메아리사격관에 는 누구나 취미와 기호에 따라 마음껏 사격할수 있는 각종 사격장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 광선총사격장과 전자권총사격장

광선총사격장은 어린이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취미에 맞게 광선(레이저 빛)을 내는 권총과 보총으로 대형투영관에 현시된 목표물을 사격하는 장소이다. 여기서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한 광선총으로 《숲속에서 뛰노는》 토끼, 사슴, 썰 등 동물들중에서 인민의 집중을 선택하여 사격할수 있다. 전자권총사격장은 5개 락으로 되어있는데 사람들은 권총으로 화면에 나오는 원형목표판과 공중에 매달린 썰 등 목표물들

을 사격할수 있다.

◆ 50m보총사격장과 25m권총사격장

50m보총사격장과 25m권총사격장은 각각 8개의 사격좌지로 되어있는데 매 좌치마다에는 사수들이 사격결과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점수판이 설치되어있고 사격과 관련한 모든 설비들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원격조종된다. 사격장에는 관람석과 함께 액정현시판이 있어 사람들은 앉은자리에서 사수들의 사격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다.

본사기자

◆ 야외사격장

야외사격장은 12개의 사격좌치가 있는데 1~5번까지의 좌치에서는 25m권총사격을, 6~10번까지의 좌치에서는 50m보총사격을 하며 11, 12번좌치에서는 50m거리에 있는 닭, 썰 등 설치 살아있는 동물들 목표로 사격할수 있다. 야외사격장에도 관람석이 있고 종합점수판이 설치되어있어 관람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사수들의 사격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다.

본사기자



## 《통 일 신 보》 가 만 난 사 랑 들 통 일 을 그 리 며 사 는 명 가 수

무겁게 짓누르는 피로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현재 최삼숙의 네형제들은 북과 남, 해외에 흩어져 살고있다. 한어머니의 피줄을 이은 혈육들이건만 만언니는 프랑스에서, 둘째언니는 남쪽에서, 최삼숙과 남동생(최명원)은 북에서 오랜 세월 리벌의 고통속에 살고있다. 그의 가정이야말로 국도량탄과 분렬의 직접적피해자, 민족수난의 축소인셈이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외세가 우리 겨레에게 강요한 민족분렬의 아픔이 얼마나 쓰라린것인가를 통절히 새겨안는 시간들이었다.

《가장 우수한 목소리를 선물하다》

자주 외우곤 했지요.》

남인수의 명명은 최창수이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강제집에 재가하면서 강문수로 이름을 고쳤다가 레코드취입가수로 등장하면서 남인수라고 부르게 된 것 같다.

해방전 하도 생활이 어려워 일본으로 건너가 소년로동을 하다가 고국에 돌아와 《오케》레코드회사의 기동가수로 활약한 남인수는 《악화류수》, 《서귀포 칠십리》, 《울며 헤진 부산향》, 《갑격시대》 등 많은 노래들을 불렀었다. 특히 리벌의 부산

향을 귀중한 노래 《울며 헤진 부산향》의 인기는 대단했다. 가슴을 쥐어뜯는 리벌의 갑격을 담아 그가 《울며 헤진 부산향》을 부를 때면 사람들은 망국의 서러움이 북받쳐올라 호느낌속에 박수갈채를 보내곤 했다.

▶ 언제부터 가수가 될 꿈을 품고있었는지.

《중학시절 예술에 취미를 가지고 평양학생소년궁전소재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동요, 동시를 읊고 아동극에도 출연했지만 성악에 남다른 기질이 있었다고는 생각 못했어.》

재능있는 가수로 성공하기까지

《(웃음)그건 소문이에요. 언니들은 가수가 된적이 없었습니다. (최삼숙이 노래를 잘 부르니 언니들도 웅당 노래를 잘하겠지.》 하고 사람들이 속단한겁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지금도 사람들은 <언니들의 이름이 일숙이, 이숙이가 맞는가.>고 묻곤 합니다. 언니들의 이름이 최현숙, 최경숙인데 내

을며 발버둥치는 어린 자식들

▶ 언니들과는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가요?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것 같군요. 해방후 반미행정에 남조선정부를 휩쓸 때 저의 어머니(김봉점)는 다섯달이 겨 지난 첫머리(둘째딸)를 업고 통일애국투쟁에 나섰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애국가들에게 대한 검거선봉이 있었다. 체포선원명단에는 김봉점의 이름도 들어있었다. 위급한 정황속에서 김봉점은 부득불 1살, 3살 난 어린 딸들과 헤어져 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1948년 마가을이었다.

▶ 그후 다시 만나지 못했는가요?

《후에 한번 만났다고 해요. 전쟁이 일어나 서울이 해방되자 어머니는 서울시보건설맹 서기장으로 전시보건의 사업을 보장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김봉점은 그처럼 보고싶었던 어린 딸들을 만나고 만났다. 그때까지 함께 살던 할머니를 《어머니》로 알고있던 어린 딸들은 선뜻 엄마에게 안길념을 못했다. 2년만에 이루어진 모녀간의 상봉이었으나 또다시 자식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안떨어지겠다는 자식들에게 《엄마는 인차 돌아온

이름이 최삼숙이니 <언니들은 최일숙, 최이숙> 일것이라고 스스로가 <결론> 내린거랍니다.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리하며 최삼숙은 우스워 입을 싸꿨었다. 인기있는 배우들에 대하여 《삼숙》이라 이름지은 최삼숙이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는 만나고 싶었을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84살에 운명하는 순간에도 <통일이 되는것을 보지 못하고, 남녘에 있는 자식들을 보지 못하고 가는것이 한스럽다.》는 말을 남기었습니다.》

해 여 저 언 제 까 지

▶ 이야기를 들으니 예술영화 《금희와 은희의 운명》이 생각납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 《아버지의 축복》을 최삼숙선생이 복음했지요?

《북과 남으로 갈라진 쌍둥이형제의 판이한 운명을 그린 영화인데 남쪽의 언니들을 그리며 눈물속에 노래를 불렀답니다.》

갈수록 커가는 행복속에 웃다가도 남녘의 언니들을

자식들과 헤어진 슬픔을 강인히 누르고 만삭이 된 몸으로 북으로 향하던 김봉점은 겹치는 파로로 하여 38°선부근에서 갑자기 해산하게 되었다. 그가 바로 38°선에서 낳은 딸이라고 하여 《삼숙》이라 이름지은 최삼숙이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는 만나고 싶었을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84살에 운명하는 순간에도 <통일이 되는것을 보지 못하고, 남녘에 있는 자식들을 보지 못하고 가는것이 한스럽다.》는 말을 남기었습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났다는 최삼숙. 하기에 최삼숙은 그후에도 통일주체의 영화주제가 형상에 남다른 애착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그처럼 그리던 언니를 꿈속에서와 같이 만나게 될줄이야.

《몇해전 프랑스에서 사는 딸언니가 평양에 온다는 소식이 문득 전해졌습니다. 비행장에 나가 얼굴도 모르는 딸언니를 알아볼수 있을가 걱정했는데 사람들이 북

미는 속에서도 첫눈에 언니를 알아보셨더군요. 세월이 흘러도 속일수 없는것이 혈육인것 같아요.》

만언니말에 의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두 언니들은 출지에 <고아>가 되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고생인들 안했겠나요. 외로움 때마다 언니들은 북녘 하늘가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원망하곤 했답니다. 하지만 만언니는 그처럼 <원망스런것> 어머니가 어찌하여 삶과 죽음의 계선을 넘나들며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도록 바치진 않았으면 안되었는가 하는 사연을 듣고는 어머니처럼 통일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최삼숙은 근 60년만에 그림던 언니와 눈물겹게 상봉했다. 하지만 상봉은 《반쪽짜리 만남》으로 그쳐야 했다. 아직도 남쪽에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둘째언니가 있다.

언제까지 한희를 누는 혈육들이 북과 남, 해외로 뿔뿔이 갈라져 살아야 하는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이어온 단일민족이 겨연 언제까지 외세에 의한 분렬의 고통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최삼숙의 이야기를 듣는 기자의 마음은 아프고 쓰렸다. 북과 남으로 갈라진 혈육들이 서로 단란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다시는 헤어짐을 모르는 단란하고 웃음넘친 생활이 다름아닌 통일이라고 확신했다.

최삼숙은 공화국의 통일애국주의에 의하여 최근 북남사이에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되고있는데 대해 이야기하면서 《은 겨레가 일제안을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